



“ 인류의 모든
족속을 한
혈통으로 만드사 온
땅에 살게 하시고
그들의 연대를
정하시며 거주의
경계를 정하셨으니,
이는 사람으로 혹
하나님을 더듬어
찾아 발견하게 하려
하심이로되 그는
우리 각 사람에게서
멀리 계시지
아니하도다

(사도행전 17:26-27;
참조, 창세기 1:28)



우리는 세 가지 재정지원의
축복을 받습니다. 그것은 바로
북미주 개혁교회 사역 분담금,
교회의 지정 헌금과 여러분의
후한 헌금입니다. 감사합니다!

일년 내내 우리는 북미주 개혁교회의 삶의
일부가 된 모든 민족의 인종적 다양성을
기념합니다. 우리는 다양성을 지니면서도
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. 사도행전
17:26-27에서 바울은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
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는 창조주
하나님 한 분이 있고 우리 존재의 뜻깊은 목적,
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을 가진다고
지적합니다.

우리는 다양성을 지닌 우리를 하나의 연합된
몸으로 모으신 구속 사역을 하신 우리 주 예수
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.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
여러 언어로 말하지만 여전히 언어와 문화의
차이를 극복하시는 성령님을 기념합니다.

**이번 특별 주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
인종관계 사역부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힘을
더할 것입니다. 우리는 북미주 개혁교회와
신자에게 신자의 몸인 교회와 온 세상에
존재하는 인종차별의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
파헤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합니다.**

인종 관계 사역부의 사역

인종관계 사역부는 북미주 개혁교회의 총회에 의해서 신자들의
몸인 교회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의 원인과 결과를
제거하기 위해 교단 전체를 돋는 프로그램과 자원을 계발하고
조직하며 실행하도록 세워졌습니다.